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 順天金氏宗報

제 59 호

2009. 2. 6 (금)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김중식/편집인: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02)400-2501~2502/FAX: (02)400-2505

## 신년사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경제 한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먼저 종친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경제 불황의 한파가 휘몰아쳤던 무자년은 가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경제 불황의 한파가 지금도 전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풀릴 것이라는 전망과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2,3년은 더 가리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새벽의 빛은 밝아오고 아무리 고난의 높은 벽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세월은 원래 시작과 끝이 없고 또한 매듭이 없어도 새해라는 세월의 출발점을 정해 놓은 것은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새출발을 하자는 인류의 약속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에는 가내 두루 평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충실과 풍요의 상징인 소(丑)의 해를 맞아 서 열심히 좀더 많은 일을 해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순천김문은 먼 조상 때부터 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또 이겨냈습니다. 매섭고 모진 칼바람에도 지혜롭게 잘 피하고 은인자중 잘 견뎌왔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와 인내를 배워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 인류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력이 있는 가문입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저력의 힘은 무엇보다도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희망,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순천김문의 끈기있고 우직하리만큼 강인한 저력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중앙종친회가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친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뭉쳐 이 세계적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냅시다. 직접 물질적 도움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정신적 지주가 되어 한마음으로, 사랑과 희망으로 뜻을 모으고 뭉친다면 어떤 어려움인들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친애하는 종친 여러분, 힘을 냅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와 인내와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고 각박한 시대일수록 온유와 겸손을 유지해야 하고 메마른 인심 일수록 사랑의 마음과 나누는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및 하시는 일들 위에 만사형통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09 기축년 아침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 謹賀新年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지난해 배풀어 주신 厚誼에 깊이 感謝드리며 새해에는 所望하시는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祈願합니다.



회장 金鍾植

- 간사장 金鳳煥
- 종무간사 金光弘
- 총무간사 金東元
- 조직간사 金龍熙
- 청년간사 金承淵
- 감사 金景南

상임 부회장 부회장

- 金相容 金喆俊
- 金相洪 金富源
- 金學元 金秀淵
- 金道淵 金東吾
- 金輔淵 金東均
- 金仁燮 金之煥
- 金東哲 金正雄
- 金德守 金大永
- 金夏淵 金祐永
- 金柄鮮 金林元
- 金鎭錫 金政壹
- 金相默 金行燁
- 金志燮 金哲宇
- 金鳳遠 金鍾龍

상임고문 고문

- 金榮熙 金昌淵
- 金柄錫 金仁培
- 金斗淵 金東杰
- 金鳳泰 金秉煥
- 金沅杰 金贊洙
- 金升淵 金東柱
- 金東英 金達賢
- 金采源 金明奎
- 金載俊 金桂在
- 金商泊 金明在

#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하자



다사다난했던 戊子年(2008)이 저물고 己丑(2009)年 새해가 밝았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이었다. 경제는 침체일로에 떨어졌고 새롭게 출발한 정권은 기대보다 더한 걱정을 던져줬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파탄냈고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이 반대의 한 목소리로 외치며 항의의 촛불이 도심을 밝히는 일이 허다했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경찰의 물대포가 되살아났으며 투석과 각목의 세상이 재현됐다. 심지어 대기업들에게 은행을 맡기겠다는 발상이 나오고 재벌과 거대 신문사들에게 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정권의 의도가 스스로없이 표출되기도 했고 대운하의 의심속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착수됐다. 지난해 한국사회의 어지러운 모습이다.

국민들은 시대가 20년은 후퇴한게 아니냐는 생각을 품었다. 경기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에 민주주의 역주행까지 맞물려 국민들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다. 이런 불편한 속에 해가 바뀌었다. 하지만 새해를 맞는 심정 역시 밝지 않은 못하다.

우선 경제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중소기업과 가계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직으로 직장에서 나와야 할 형편이다. 정치 또한 국회가 폭력의 아수라장으로 얼룩졌고 다툼과 갈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백수로 전전할 우려가 커지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은 이래저래 어깨가 무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IMF의 험란한 터널을 뚫고 나왔듯이 이 참담한 시기도 극복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강한 힘을 발휘해 왔다. 다시한번 저력을 보여줄 때다.

우리 종친회도 결코 예외는 아닌 듯싶다. 그러나 아무쪼록 새해에는 종친회원 여러분이 더욱더 화합된 모습으로 조상의 음덕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어린 나눔과 봉사로서 위선사에 헌성, 보답하여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올해는 소의 해다. 소는 근면과 성실함이 대명사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좌고우면(左顧右盼) 하지 말고 앞만 보고 묵묵히 전진하자.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속언과 마찬가지로 소처럼 성실함을 무기로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 간다면 지금의 고통은 머지않은 장래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끝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 어두운 매듭을 빨리 풀어내 끝을 앞당길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한해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해가 됐으면 한다. 새해에는 우리 종친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충심으로 기원한다.

김상용(상임부회장)



乙丑年 新年賀禮



년중 제일가는 이 좋은 때에  
 집집마다 제사 받들고 손님대접하네  
 어진풍속 진작시켜 세교로 삼고  
 착한 말 주고받으며 인륜을 두터이하네  
 민심은 점차 세월 쫓아 두터워지고  
 사업은 모두가 물후를 따라 새로워지네  
 원근 종친이 동석한 가운데  
 천문만호에 즐거움이 진진하네

虎山門中 隱湖 金在文

千 遠 事 民 相 振 奉 年  
 門 近 業 心 酬 作 祀 中  
 萬 宗 皆 漸 善 良 家 第  
 戶 親 從 逐 話 風 家 一  
 樂 同 物 光 篤 爲 又 是  
 陳 席 候 陰 篤 爲 接 佳  
 陳 裡 新 厚 人 倫 教 賓 辰

傳統民俗日有感



# 나의 아호와 아이디



고향길 천릿길 그리움에 젖는 길  
눈 앞에 삼삼이는 꿈길에서 가는 길  
고향에 가는 발길이 왜 이다지 더딘가

정든길 그리운길 세월처럼 아련한 길  
애증에 웃고 울며 철모르고 즐거웠던  
이 생명 태어나 자란 품속 같은 은혜길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려본 적이 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리움과 추억의 대상이요 어머니 품속 같은 포근한 곳이다. 1960년대 이후 농경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농촌은 대체로 변모되거나 파괴해졌으나 그래도 고향은 언제나 마음속깊이 자리한 아련한 그리움의 고향이다.

내 고향은 따뜻한 남쪽땅 해변산중의 아늑한 마을인 방춘리(芳春里:해남군 계곡면)라는 곳이다. 방춘리를 풀이하면 꽃다운 봄마을, 한창 꽃이 핀 마을, 꽃향기 그윽한 봄마을, 아름다운 명성이 꽃같이 피어나는 봄마을 등의 뜻이 있다.

봄이면 살구꽃이 온마을을 분홍빛으로 수놓고 여름이면 뒷동산 대나무밭에 이는 바람소리와 앞개울 물소리가 어우러진 정자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며 흥겹게 지내는 무릉도원의 마을이요, 가을에는 황금빛 노적거리가 집집마다 산더미를 이루어 풍요로운 격양가 소리 드높고 겨울에는 뒷동산 동백나무 숲이 붉은 꽃망울을 터트리는데 함박눈이라도 소록소록 내리는 날이면 한 폭의 수묵화 같이 마냥 평화롭기만 한 그런 마을이었다.

이 고향마을처럼 항상 평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자 나의 아호를 방촌(芳村)이라고 지었다. 방촌(芳村)의 마을, 곧 꽃으로 가득한 봄마을이라는 뜻이다.

아호는 풍아(風雅)한 마음을 지니기 위한 별호로서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인터넷상의 이름인 아이디(ID)는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나의 아이디는 갈렘(galef)이다. 성경에 나오는 갈렘(Caleb)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다.

갈렘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일등 인간은 못된 이등 인간이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성실히 섬기며 이등 인간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한 사람이었다. 갈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신앙인이었다. 이등 인간인 채로 만족하며 조금도 비굴함이 없이 당당하고 의연한 삶의 자세와 담대하고 긍정적인 신앙이 본받을 만했다. 아예 일등 인간이 못된 나로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는 갈렘이 인간적으로 더 친근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그를 더 잘 알고 친숙해져 보려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나의 아이디로 삼은 것이다.

갈렘은 꿈을 지닌 모험과 도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꿈을 찾아 간직하고 평생 그 꿈을 향해 도전하며 살았다. 갈렘은 '공격자', '개', '종'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갈렘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갈렘은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좋았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협력하는 숨은 일꾼이었다. 85세 때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세 때의 강건한 육체를 지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장수한다는 건강에 대한 간증을 남길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어 정탐시킬 때에 갈렘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과 승리를 예언하였다. 이는 모세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한 신앙의 고백이었다. 갈렘은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용기를 북돋우어 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12지파의 대표 중 10지파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겁에 질려 가나안 정복의 불가능을 보고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렘은 희망적이며 낙관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만큼 반드시 정복할 수 있으며 쫓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임을 증언하였다.

갈렘은 여호수아와 대등한 영적인 사람이었으나 여호수아를 앞세워 일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다. 여호수아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나 항상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갈렘은 둘째 자리에서 불평 없이 만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이점이 일류 인생이나 앞자리 인생이 아닌 이류 인생이요 뒷자리 인생인 나로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갈렘은 조급해하지 않고 끈기 있게 꿈을 향해 기도하고 예비한

사람이었다. 믿음은 오래 참는다는 본보기였다. 그는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협력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또 남의 성공을 자기 성공만큼이나 기뻐했다. 이는 탐심이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10지파의 대표들은 물질적이며 인위적인 조건을 구비한 이상향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그들의 눈엔 역센 거민과 살벌한 땅밖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갈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땅이요 그 언약을 믿고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물질과 인간 이상의 세계임을 믿었다.

갈렘은 땅의 좋고 나쁜 것에 인간의 사는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므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가나안과 같은 축복의 땅임을 믿었다.

온전하고 투철한 젊은 날의 믿음이 45년이 지난 85세에도 변함없이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싸움에 나가 헤브론 산지를 쟁취했다. 그것은 분명히 신앙이 만든 경건한 인간의 모습이다. 복이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여호수아는 갈렘이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고 축복해 주었다.

갈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징계를 받은 백성들을 분명히 보았다. 불신앙은 죄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에 따라 낙심하지 않고 굳세고 담대하며 생명력 넘치게 산 갈렘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사명을 받고 태어나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이 지상에 남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한다. 그 사명에 경건하고 충실하며, 긍정적 굳센 의지로 사는 한 중도에 이 세상을 떠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긍정적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 사고를 가지면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 사람이 되나 불안한 믿음은 부정적 인생을 살게 마련이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한다. 갈렘은 이런 믿음과 긍정적 사고로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사람이었다.

나는 아이디를 적어 넣을 때마다 갈렘을 생각하며 닮아가기를 바란다.

김중헌(남은공 16대손, 시조 42세, 수필가)

<시조>

흑석산(黑石山)

김중헌

병풍을 둘러친 듯 장중히 솟은 기상  
계곡(溪谷)의 들과 마을 품어안고 굽어보며  
시냇물 골골이 내려 복된 고장 이뤘네

시냇골 깊은 가슴 젖줄을 풀어내어  
등성잇들 곡식 가꿔 풍년노래 흥청일 때  
조용히 미소지으며 자비심을 베풀고

고향땅 찾아들면 제일 먼저 반기는 너  
풀포기 바윗돌도 그림고 정겨운데  
흘러간 삶의 자취들 가슴절절 품었네

육이오 때 불타버린 방춘(芳春)의 터전에도  
동백꽃 살구꽃 철따라 피련마는  
그 시절 세월의 아픔 어디에서 찾을꼬

만남도 기약없고 떠남도 무상하여  
부모님 조상님께 불공스레 떠도는 몸  
나그네 지향없는 길 망향가를 부르네

진달래 산국화꽃 향기도 진할시고  
네 품에 찾아들어 그 향기에 취했었지  
이제는 그 푸른 추억 백운(白雲)따라 흐르네

\* 흑석산은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뒷산임.  
방춘리는 양경공과 절재공, 남은공을 모신 사당이 있는 마을

# 경북도청 이전 확정된 구담 집성촌

14세기말 감사 권집경이 구담에 정착하면서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사위가 바로 구담 마을의 입향조인 국담 김유은 이사다. 예조참의로 계시다가 장인의 권유로 이곳 구담 마을에 정착하여 영남사람이 되었다. 500여년 넘는 세월동안 경반으로 벼슬에 나간 파도 있지만 대개 안동에 세거한 파는 문과 6명 사마시 14명을 배출하면서 향촌 사족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 후손들 일부는 아직도 안동구담을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나 전국에 걸쳐 그 후손들이 곳곳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8년 경북도청 이전지로서 이곳 예천 호명면 일부와 안동 풍천면 일부가 확정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2025년까지 10만 주민의 행정도시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이곳을 끼고 흐르는 낙동강 불길

또한 새로운 생태환경공원 조성으로 활기차게 그 시작을 알렸다.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고 어쩌면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힐 날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그 중심에 우리 순천김씨가 서 있는 것이다. 한때 조상이 남겨주신 임야, 전, 답들이 이런저런 연유로 많이 줄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문중 재산이라도 잘 지켜 나간다면 쇠락의 길로 접어든 문중의 부활도 꿈만은 아닌듯하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명문사족의 기틀을 마련해주신 조상님께 그 맥을 활기차게 열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중일에 등한시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며 살아왔음을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스스로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

만 일삼는 부끄러운 마음을 이제라도 훌훌 털어버립시다. 고향을 떠나 있던 후손 모두 이제 적극적으로 문중 부활에 동참합시다. 기축년 새해, 희망의 붉은 해가 힘차게 떠 올랐습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이제야 후손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도청이전과 함께 찾아온 이 기회를 발판삼아 500년 집성촌으로 그 위상에 걸맞는 순천김씨의 정신적 터전으로 만들어 갑시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국에 계신 순천김씨 종친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관심 갖고 동참합시다.

2009년 기축년 새해

김봉환(중앙종친회 간사장)

#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부회장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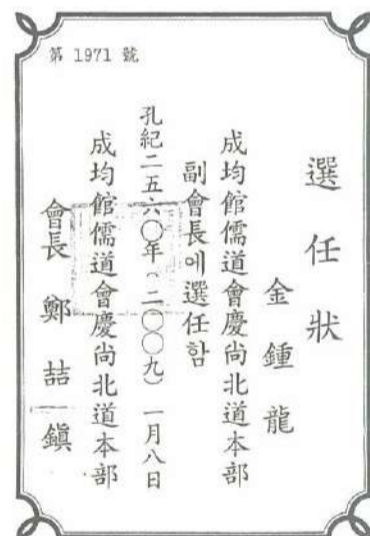
- 金鍾龍 宗親 -



지난 2009년 1월 8일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부회장에 선임된 김종용은 1934년 1월 18일 유림의 본고장인 이곳 안동 구호동에서 출생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유년기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여 교직에 몸담아 후진 양성에 심혈을 쏟으면서 책과 함께 평생을 함께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80년 대구시 남구 대명5동에 상명고전연구원을 설립하고, 저명한 석학들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까지 고서연구, 번역 및

향교, 서원의 역사 관혼상제 한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기대 또한 크게 가져도 좋을 듯하다. 국담 선조님의 낙남이래 명문사족으로 터잡아온 이곳 구담 '집성촌'은 수십년 그 맥이 끊어진 듯 쇠락의 기로에서 그는 큰 등불이 되어 줄 것이며, 향교 유림 사립과의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문중의 새로운 부활을 꼭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유도회 부회장 선임을 우리 모두 크게 환영하자.

김봉환(중앙종친회 간사장)



# 謹賀新年

- 安東宗親會 -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萬事亨通하여 所願成就하시기를 祈願합니다.



회 장 : 金東春  
 부회장 : 金 晉, 金鍾海,  
           金昌燮, 金秉德  
 총 무 : 金潤煥  
 감 사 : 金東渥, 金商仁



<http://www.schkim.co.kr>

# 祭祀의 由來와 現代的 意義



제사(祭祀)란 이 땅위에 인간(人間)이 태어난 이후 안녕(安寧)과 행복(幸福)을 추구(追求)하면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神靈)님과 하나님 및 조상신(祖上神)에게 습관적으로 드려 온 것이라 하겠다.

## 1. 신령님께 드리는 제사

신령의 종류는 산(山)에는 산신령이 있고 부락단위에는 수호신(守護神)을 신당에 모셨고 바다에는 용궁(龍宮) 혹은 수궁(守宮)에 용왕(龍王)이 있는 것으로 믿고 각종 제사를 지내왔다.

산신에게는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탈 때 애타는 농민들이 소를 잡아 산봉우리에 올라가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그러면 2, 3일 안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 농민들이 기뻐하며 감사했다. 부락단위의 신령님께도 1년이면 한 번씩 소나 기타 동물을 잡아 부락민 모두의 평안(平安)을 비는 제사를 오래도록 지속했다.

그 밖에도 집을 지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번창을 비는 고사(告祀)를 지내왔다. 공장이나 사업장, 바위틈에 신령님이 머물러 없겠지만 맛나는 돼지머리로만 지내오고 있다. 그리고는 반주(飯酒)를 들면서 대화를 하므로 화목하고 단합하도록 일찍이 성현(聖賢)들이 꾀한 것으로 여긴다.

또한 해변이나 섬에 사는 어부들은 기상관측이 안 되는 시대에 바다에 고기잡이를 떠났다가 풍랑으로 많은 희생을 당했다. 그럴 때면 틀림없이 높을 파도가 치고 일렁이는 바닷물 속 깊은 곳에는 용왕(龍王)님이 있어서 성을 내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어부들은 무사안전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그 중 유명한 예로 고대소설 심청전(沈清傳)이 있지 않은가.

공양미(供養米, 어른이나 부처님께 드리는 것) 300석에 처녀인 자기 몸을 팔아 위험스러운 바닷물 속에 산채로 제물이 되어 던지움으로 봉사(소경)인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효녀의 작품이다. 반면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기를 바라는 제사도 지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안지역과 제주도에는 각종 신당과 제사가 많다고 하겠다.

## 2. 일본신과 중국신의 제의

가까운 일본도 큰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신당이 있어 절기마다 제사(마쓰리)가 많다.

일본의 고사기(古事記)에 의하면 천지(天地)가 시작될 때의 신은 「아미노 미나가 누시가미」(天之御中主神) 「다가미 무스히가미」(高御產巢日神) 「가미무스히가미」(神產巢日神) 3신이고, 그 다음 2신이 탄생하여 하늘의 신 「고도아마즈가미」라 하고 지상(地上)의 신은 「신이 탄생하지만 그 중에서 2신 「이자나기노가미」(伊弉諾岐神) 「이자나미노가미」(伊弉諾美神) 신이 일본이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신의 기원은 두 신에서 유래한다고 했다. 그 후에 여러 신이 탄생했다.

제사의 명칭과 종류는 신사의 제례, 법회, 사원의 수정회, 정월의 행사, 칠석(七夕)행사, 사자놀이, 민속신앙의 풍속행사가 다양하게 있다.

중국의 신은 중국 고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반고(盤古)가 천지를 개벽하고 세상을 창조한 신(神)이라고 했다. 그가 죽으면서 세상의 만물로 변했는데 그의 기(氣)는 바람과 구름으로 음성은 천둥과 번개로 왼 쪽 눈은 해로, 오른 쪽 눈은 달로, 팔과 다리와 혈액은 산과 하천으로, 핏줄은 지형으로, 살은 논과 밭으로,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늘의 별로 변했다고 했다. 그가 눈을 뜨면 낮이고 감으면 밤으로 갈린다고 했다.

이 창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잘 위한 제국은 변창했다는 설이 있기도 하다.

## 3.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약성서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키 위해 늙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불에 태워 지내는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화목으로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우고 산으로 향해 갔다. 얼마나 슬픈 장면인가. 그 당시 유대지방에서는 어린 아기를 제물로 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산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는다. “같은 있는데 번제할 양(羊)은 어디 있습니까?” 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준비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불을 붙일 장작을 쌓아 올리고 제단을 마련한 후에 느닷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변하여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삼으려 한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敬畏), 공경하고 두려워

함)하는 줄 안다. 뒤를 돌아보라”고 했다. 긴장된 아브라함은 뒤를 살펴보니 숫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양을 대신 잡아 번제로 드렸다.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에서 탈출하여 지켜갈 제사와 규례가 구약성서 레위기에 여러 곳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서에 와서는 청년 예수가 로마제국의 통치 하에 신음(呻吟)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수적이고 국수주의자들인 바리새당에게 시달리는 그들을 향해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복음을 믿으라”(마가복음 1장 15절)고 혁명적인 선언을 했다.

예수가 점점 만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 두려워진 바리새당이나 로마 통치를 지지하는 헤롯당은 우매(愚昧)한 민중을 선동하여 인민재판에 의해 예수를 로마 통치를 반대한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가에 처형토록 했다.

예수는 정의롭고 자유를 위한 주장일 뿐 무죄하지만(요한복음 19장6절) 무지하고 나약한 모든 사람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대속물(代贖物)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신약성서 고린도후서 5장14절~15절) 마치 산 제사를 치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구속(救贖)을 받을 길을 터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각과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일종의 제의(祭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4. 조상신께 드리는 제사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존재케 한 근본에 보답코저 조상에 대해 살아계실 때 섬기듯이 제사를 지내왔다.

어떤 경우에는 신처럼 인격화 해서 믿으며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화(禍)를 내리시는 것으로 믿고 섬겼다. 풍수지리학은 이를 더욱 뒷받침 했다.

나의 경험으로는 어릴 적 조상의 제사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다. 추운 겨울밤이면 영하 15도, 20도가 오르내리는 밤 자정에 제사를 지낸다. 깊은 밤에야 조상신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린 막내지만 남자라고 맨 끝번으로 절을 한 후에는 온 가족이 집밖으로 나오고 문을 반쯤 열어 놓는다. 조상신이 흥향(歡響, 제물받음)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추위에 무리한 감이 있었으나 사뭇 엄숙하고 정성스러웠다. 잠시 후 온가족이 방으로 들어가 제물을 나누어 들며 대화를 하고 화목을 이루었다. 그 당시 높은 교육을 받기 어려울 때 이런 풍습은 좋았다고 생각이 든다.

## 5. 제사의 현대적 의미(意義)

옛날 공자님도 제자들의 질문에 제례(祭禮)는 호화로운 것보다 검소한 이 낮고 복잡한 의식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다. 보본감은(報本感恩,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갚음)을 말한 것이다.

현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산에나 바다에나 사업장 그 어디에나 신령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상신이 있어서 후손들의 길흉(吉凶)을 좌우한다고 믿는 자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창조주인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으로 이성적 관찰이나 성서를 통해 인정하거나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대에 있어서 조상의 제사 형식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기일(忌日, 사람 죽은 날)부터 증조부모(曾祖父母)까지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외 형제들까지 합치면 1년 중 제사가 매달 있을 수 있다.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핵가족시대가 되므로 해서 제일(祭日)에 꼭 참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른 중에 보수적인 분이 계시면 불참자는 책망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억지로라도 참석해야 되니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현대를 이해하는 형제들은 1년 중 설날(正月初)이나 추석(秋夕) 또는 부모님 생신일을 택해서 한 번이나 두 번 만나 선조의 은덕도 기리고 형제 친척 간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들며 화목을 이어가는 실례가 늘고 있다. 음식도 의례(儀禮)에 치우치지 않고 회식에 중점을 두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방법이 현대적인 의의가 아닐까 싶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면 망자(亡者)의 기일에서 1주년이 되는 날 추모일로 지내고 그 후 3년만에 또한 그 후 7년, 그 후는 12년 만에 추모일을 지킨 후에는 정해 놓고 지키는 기일은 없어진다.

우리나라도 현실에 맞게 관계기관의 연구가 있어서 새로이 제사규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謹賀新年

### 釜山宗親會



會長 金仁燮  
副會長 金成福  
總務 金炳模

### 大田.忠南宗親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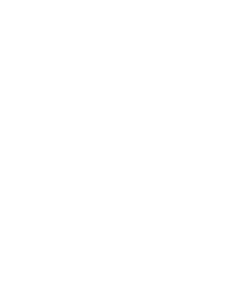
會長 金炳鮮  
副會長 金正雄  
總務 金東元

### 仁川宗親會



會長 金世熙  
副會長 金文熙  
總務 金文熙

### 明親會



會長 金成遠  
副會長 金商顯<sup>外人</sup>  
總務 金東均

### 天安.牙山宗親會



會長 金泰淵  
副會長 金商根  
總務 金東賢

### 聞慶宗親會



會長 金承淵  
副會長 金秉喆  
總務 金仁浩

### 寶寧宗親會

會長 金志燮  
副會長  
總務 金周南

### 鳩尾宗親會



會長 金澤洙  
副會長 金東煥  
總務 金希燮

### 順天宗親會



會長 金學淳  
副會長 金鍾烈<sup>外人</sup>  
總務 金鍾斗

### 龍仁宗親會



會長 金漢鶴  
副會長 金漢泰  
總務 金昌烈

### 利川宗親會



會長 金炳學  
副會長 金碩載  
總務 金文載

### 高陽宗親會

會長 金東學  
副會長 金東旭  
總務 金東元

### 原州宗親會



會長 金道均  
副會長 金昌模  
總務 金澤桓

### 海南宗親會



會長 金相實  
副會長 金台鉉  
總務 金正熙

### 潭陽宗親會



會長 金亨三  
副會長 金龍錫  
總務 金西錫

### 虎山宗親會



會長 金東濟  
副會長 金 鉉  
總務 金동진

### 盤谷宗親會



會長 金圭八  
副會長 金秉準  
總務 金仁浩

### 黃山宗親會



會長 金宗旭  
副會長  
總務 金相南

### 持平公派宗會



會長 金學元  
副會長 金鍾元<sup>外人</sup>  
總務 金東元

### 典書公派宗會



會長 金炳學  
副會長 金錫裁<sup>外人</sup>  
總務 金文載

#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8년 11월 1일부터 ~ 2009년 1월 30일까지

### 부회장

- 1. 김보연 2008. 12. 31 경기도 고양시
- 2. 김행엽 2009. 1.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고문

- 1. 김창연 2008. 11.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 대의원

- 1. 김완선 2008. 11. 24 경기도 고양시
- 2. 김영학(한학) 2008. 11. 24 경기도 용인시

### 이사

- 1. 김봉배 2008. 11. 28 부산광역시 금정구
- 2. 김길홍 2008. 12. 31 충청남도 천안시

### 의원









- 1. 김승태 2008. 10. 31 경상북도 경주시
- 2. 김동학 2008. 7. 21 경상북도 구미시
- 3. 김길영 2008. 11.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 4. 김상용 2008. 11. 21 전라북도 익산시
- 5. 김상균 2008. 11. 24 경기도 남양주시
- 6. 김학연 2008. 11. 25 강원도 철원군
- 7. 김해연 2008. 11.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 8. 김중운 2008. 11. 26 충청북도 충주시

- 9. 김병렬 2008. 11. 26 대전광역시 서구
- 10. 김상열 2008. 11. 26 경상남도 김해시
- 11. 김호윤 2008. 11. 26 울산광역시 중구
- 12. 김병한 2008. 1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3. 김재용 2008. 11. 27 경기도 성남시
- 14. 김선원 2008. 11.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 15. 김상욱 2008. 11. 28 경기도 고양시
- 16. 김운용 2008. 11.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7. 김영철 2008. 11. 28 경기도 의왕시
- 18. 김중근 2008. 11.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 김광도 2008. 11. 26 강원도 양구군
- 20. 김동욱 2008. 11. 27 경상북도 문경시
- 21. 김철수 2008. 11.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 22. 김동경 2008. 12. 1 인천광역시 동구
- 23. 김광연 2008. 1. 28 충청북도 영동군
- 24. 김춘연 2008. 12. 1 경기도 양주시
- 25. 김중열 2008. 12. 1 울산광역시 남구
- 26. 김동근 2008. 12. 2 경기도 고양시
- 27. 김동준 2008. 12. 4 경기도 하남시
- 28. 김호일 2008. 12. 8 경기도 수원시
- 29. 김동이 2008. 12. 8 울산광역시 북구
- 30. 김형관 2008. 12. 10 광주광역시 북구
- 31. 김만환 2008. 12.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 32. 김욱남 2008. 12. 15 경기도 고양시
- 33. 김상남 2008. 12. 12 전라남도 해남군

- 34. 김정수 2008. 12. 12 경상북도 경주시
- 35. 김옥연(병두) 2008. 12. 19 경상북도 상주시
- 36. 김인상 2008. 12. 24 충청남도 보령시
- 37. 김동해 2008. 12. 26 경기도 용인시
- 38. 김영환 2008. 12.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 39. 김연관 2009. 1. 2 경기도 이천시
- 40. 김수영 2009. 1. 8 경기도 수원시
- 41. 김종욱 2009. 1. 6 경상북도 안동시
- 42. 김병철 2009. 1.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 43. 김형연 2009. 1.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 44. 김동철 2009. 1. 23 충청북도 충주시
- 45. 김동파 2009. 1. 28 경상남도 진해시

### 무명인

- 1. 2008년 11월 24일 농협/원주농협
- 2. 2008년 11월 26일 진접농협/풍향지소
- 3. 2008년 11월 26일 신영농협/농협
- 4. 2008년 11월 28일 연기군산림조합
- 5. 2008년 11월 28일 화도농협/농협
- 6. 2008년 11월 28일 우리은행/구월중앙지점
- 7. 2008년 11월 28일 새마을금고/이천설봉지점
- 8. 2008년 12월 1일 농협중앙/해남군지점
- 9. 2008년 12월 2일 남동농협/신기지점
- 10. 2008년 12월 12일 신한은행/하당지점
- 11. 2008년 12월 17일 우리은행/성대수원

<h4>參議公派宗會</h4>  <p>會長 金秀淵 副會長 金鳳煥 外1人 總務 金鍾南</p>	<h4>判書公派宗會</h4>  <p>會長 金志燮 副會長 總務 金周南</p>	<h4>忠貞公派宗會</h4>  <p>會長 金載俊 副會長 金春熙 總務 金重溶</p>	<h4>監察公派宗會</h4>  <p>會長 金春熙 副會長 金東勳 總務 金俊一</p>	<h4>橫城公派宗會</h4>  <p>會長 金鳳遠 副會長 金商顯 外4人 總務 金木熙</p>
<h4>尙衣院公派宗會</h4>  <p>會長 金鍾洛 副會長 金東學 總務 金商珉</p>	<h4>進士公派宗會</h4>  <p>會長 金白源 副會長 金奉斌 總務 金柄允</p>	<h4>副護軍公派宗會</h4>  <p>會長 金商錫 副會長 金大淵 總務 金世淵</p>	<h4>柯谷公派宗會</h4> <p>代表 金敏淵 副會長 金相德 總務 金東善</p>	<h4>注書公派宗會</h4> <p>會長 金亨三 副會長 金龍錫 總務 金酉錫</p>
<h4>節齋公派宗會</h4> <p>會長 金亨三 副會長 金龍錫 外8人 總務 金酉錫</p>	<h4>御史公派宗會</h4> <p>會長 副會長 金賢熙 總務 金在熙</p>	<h4>牧使公派宗會</h4> <p>會長 金都淵 副會長 金二淵 外1人 總務 金秀楨</p>	<h4>萬戶公派宗會</h4> <p>會長 金允在 副會長 金光弘 總務 金商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本 회 의 하 2011년 1월 18일 김공정태 감사님께 서 명부 일장례 모셨음을 알려드리고 동지 삼가 바랍니다. 알려드리고 공의 음</p> </div>

# Great Challenge

위기가 클수록 더 크게 도전합니다  
오늘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  
새로운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